

國際石油情勢의 변화와 OPEC의 對應戰略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

OPEC (石油輸出國機構)의 사무총장 대리이며 사무차장인 Fadhil J Al-Chalabi 博士는 최근 「Petroleum Review」誌와 인터뷰를 갖고, 세계석유시장에서 그 지위가 악화되고 있는 OPEC의 失勢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밝혔다. 이를 번역·전재한다. (編輯者註)

問 새 전략에 의해 OPEC (石油輸出國機構)가 향후 5년에 걸쳐 얻게 될 成果는?

答 5년의 기간은 세계석유시장에서 적정한 시장점유율의 확보와 방어를 목표로 하는 OPEC의 새로운 전략의 결과에 대해 評價를 내릴 수 있는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략이란 즉각적인 効果を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떠한 假定을 가정하고 展望을 내려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OPEC의 산유량이 79년 31백만 b/d에서 85년에 15.5백만b/d 이하로 격감한 것은 어떤 우발적인 현상도 아니며, 자고 나면 治癒될 성질의 지나쳐가는 과정도 아니다. 그것은 세계석유산업과 전반적인 에너지 상황에서 長期間에 걸쳐 일어난 구조적인 변화의 결과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70년대에는 非

OPEC原油 및 他에너지源에 비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는 OPEC의 정책과 에너지의 OPEC 依存度を 낮추려는 소비국들의 민감한 대응에 의해 야기되었다.

에너지절약과 다른 조치들으로써 소비국들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늘릴 만큼 향상시켜 에너지原單位를 낮출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高油價 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소비국들의 정책에 의해서 石炭과 原子力 등의 代替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共產圈을 제외한 세계석유소비량은 급격한

감소를 보여, OECD(經濟協力開發機構)의 84년 소비량은, 79년에 비해 6백만b/d 이상 줄어들었다.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OPEC의 高油價정책이 세계 도처에서 새로운 석유생산을 위한 막대한 시설투자를 誘發시킨 점이다.

지난 10여년동안 공산권을 제외한 非OPEC 산유국의 생산량은 약 7백만b/d 증가하였으며, 공산권을 포함하면 약 11백만b/d 증가하였다. 이들 증가분이 OPEC의 시장을 잠식하여 지금은 세계석유시장을 左之右之하고 있는 실정이다.

‘OPEC의 減產政策은 非OPEC產油國을 도와줘’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OPEC原油는 3重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 즉, 非OPEC原油의 생산량 증대, 石油代替에너지의 이용 증대, 그리고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에너지 수

요감소가 그것이다.

OPEC는 油價를 방어함으로써 세계에너지의 생산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고수하기 위해 생산량을 대폭 감축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

은 오히려 그 동안 판매량 확대를 위해 OPEC에 비하여 제한적으로 低油價를 견지하여 왔던 非OPEC 產油國들이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이른바 利潤 極大化를 추구하는데 一助한 결과가 되었다. 또한 OPEC의 高油價 정책으로 인하여 非OPEC 產油國들은 새로운 시설투자를 계속하여 단시일내에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다.

만일 생산조정자로서의 역할 고수라는 OPEC의 옛 전략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會員國들의 石油販賣收入이 그들의 경제개발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 必要條件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OPEC의 생산량이 79년의 31백만b/d에서 불과 2년 후인 81년에 22.6백만b/d로 급격히 감소하였을 때만 해도 석유 판매수입이 경제개발 소요자금을 충당할 수 있어 OPEC는 그런대로 역할감소를 堪耐할 수 있었다.

다음 해인 82년에 다시 19백만b/d로 감소하였을 때도 OPEC는 가까스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생산량 감소추세가 계속되어 16백만b/d 이하로 떨어지자 OPEC는 더 이상 油價방어와 생산조정자로서의 역할유지가 곤란하게 되었다.

사실 OPEC가 油價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石油收入 뿐 아니라, 시장점유율에도 달려있다. 80년에 2,800억 달러의 石油收入이 85년에는 1,300억달러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자연히 會員國들은 시장수요의 한도를 넘어 더 많은 석유를 팔려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되었다. 동시에 自由世界 석유 총공급에서 OPEC의 비중이 73년 67%에서 85년에는 40%로 떨어

짐에 따라 시장통제력도 크게 약화되었다.

따라서 OPEC의 새 전략도 단시일내에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최소한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생산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함에 따라 OPEC는 非OPEC 산유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뿐 아니라, 세계 시장환경 변화에 유효히 대처할 수 있는 정책도구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OPEC의 정책 변화가 시장의 안정유지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OPEC가 최소한의 시장점유율 확보에 중점을 두고 價格政策 및 對世界戰略의 수정을 시사하였을지라도 市場安定維持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 목표로 남아 있다.

問 OPEC가 새 전략을 수행하는데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는?

答 세계 석유산업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믿어지는 향후 5년을 통하여 세계에 너지의 주요한 3가지 변천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것들은 ① 世界石油需要 ② OPEC제외한 石油매장량 ③ OPEC와 非OPEC산유국과의 관계 등이다.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세계석유수요는 앞으로 10년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工業國에서의 석유 수요감소는 開發國에서의 수요증가로 말미암아 상쇄될 것이다. 세계석유수요의 감소추세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OPEC의 어떠한 노력도 단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공업국이나 소비국들의 정책이 이미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과의 사이에 새로운 구조적인 함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에너지절약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 또한 에너지 代替도 간단히 중지될 수 없다. 특히 原子力은 투자가 이미 진행중에 있어 완공만 되면 운영비용은 매우 낮다. 石炭採掘도 이미 투자가 다시 재개되고 있어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세계석유수요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10년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

‘非OPEC의 석유매장량은 한계가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측면과 OPEC제외한 세계 확인매장량의 추이이다. 확실히 OPEC와 世界와는 可採年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현재 OPEC는 공산권 포함 세계확인매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생산량은 1/3에 못미치고 있다. 반대로 非OPEC산유국의 확인매장량은 세계 전체의 1/3에 불과하나, 생산량은 2/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를 제외한 非OPEC산유국들의 석유매장량은 한계가 있

어 수명이 매우 짧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OPEC의 가채년수(매장량/생산량)가 90년인 반면 非OPEC는 약 17년에 불과하다. 이것은 멕시코를 제외한 非OPEC산유국들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그들의 석유자원 枯渴은 매우 빨리 다가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소요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곧 回收率을 높이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또한 深海에서 석유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들은 이러한 많은 財源을 세계 油價에 의존할 것이며 여기서 OPEC의 행동여부가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OPEC는 생산비가 저렴한 막대한 회수가능한 석유매장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투자비용으로 추가매장량을 발견할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英國의 석유매장량은 충분히 개발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생산수준을 14년 이상 지속시키지 못한다. 현재 최대 산유량인 2.6백만b/d를 유지하고 있는 英國은 생산을 오래 계속하려면 減産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고 현재의 생산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은 美國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현재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회수장치에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9년도 못가서 생산량 감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세계 최대의 產油國인 소련조차 石油資源의 고갈에 따른 심각한 기술적 문제를 겪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問

OPEC의 새 전략의 成果分析에는 예상되는 非OPEC 產油國의 對應戰略이 고려되어 있는가?

答

물론 그것은 향후 5년에 걸쳐 나타날 새 전략의 效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非OPEC산유국들은 어느 정도의 가격수준에서 市場安定을 위하여 OPEC과 공동노력을 擇하리라고 생각

된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대로 적절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새 전략의 주목표일지라도 OPEC가 시장안정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을 되찾으려는 OPEC의 정책에 非OPEC 산유국들이 減産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시장안정 속에 시장점유

율 확보라는 OPEC의 새 전략은 무난히 달성될 것이다. 그리하면 현재의 價格體系를 고수함으로써 OPEC와 非OPEC 산유국들은 收入의 極大化와 안정된 市場의 적정한 分配를 실현할 수 있으며, 油價의 붕괴를 방어하는 것이 서로의 利益이 됨을 인식할 것이다.

‘價格競爭은 非OPEC產油國에 더욱 불리’

그러나 반대로 非OPEC산유국들이 가격에는 아랑곳 없이 최대 시장점유율만을 추구할 경우, 市場이 혼란될 것이며, 油價의 하향추세는 아무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生産費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產油國들이 손실을 입게 된다. 非OPEC산유국들은 이미 최대생산수준에 도달해 있으므로 油價하락에서 오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OPEC도 초과생산을 통하여 收入增大를 꾀한다면 油價하락에 따른 손실분에 의해 相殺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5년이라는 時限性에 대하여 의문에 부딪치게 된다. 非OPEC산유국들은 油價戰爭에서 제한된 시간, 아마도 2 내지 3년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며, 그 이유로 가격폭락 상황에서는 現생산수준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투자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격폭락 상태에서는 非OPEC산유국들이 시장점유율의 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생산비가 높은 原油를 매우 낮은 가격으로 고갈시킬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中期的으로 볼때 產油國들은 量과

價格에서 다 같이 손실을 초래할 가격경쟁을 지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매장량이 풍부하고 또한 생산비가 낮은 OPEC의 상황이 逆轉된다. 예를 들어 쿠웨이트의 確認매장량은 현재의 생산수준으로 240년 동안 採油할 수 있으며, 생산비가 가장 낮은 새로운 매장량이 추가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다른 페르시아灣산유국들에 있어서도 비슷하다.

그러나 가격체계 유지를 위해 결국에는 OPEC와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非OPEC산유국들은 이러한 사실을 의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OPEC과 非OPEC산유국과의 價格競爭이 극단적으로 害를 초래하게 된다면 시장점유율의 적절한 再分配를 근거로 하는 市場安定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問

OPEC는 原油價가 배럴당 20달러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는가?

答

최근 배럴당 20달러의 原油價가 마치 均衡價格인 것처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수치에 관한 한 어떠한 불변의 진리가 있다

고 생각하지 않는다.

油價는 OPEC의 정책변화에 對應하는 非OPEC 산유국의 태도에 좌우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生産量調整과 시장점유율의 적정한 再編成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市場의 일부를 OPEC에 돌려줄 수 있다면, 현재의 가격체제는 쉽게 유지

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합당한 가격수준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노력이 없다면 끝없는 가격하락으로 마침내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限界運費費 수준까지 떨어져 OPEC에 비해 석유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非OPEC 산유국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로 OPEC와의 협력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중요하다.

예를 들어 거대한 人口와 外債를 짊어지고 外貨의 石油收入 依存度가 높은(총수출의 75% 이상) 멕시코와 이집트가 현재의 가격수준에서 生産量과 輸出量을 적절히 줄인다면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진 수준에서 시장점유율에 집착하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 두 나라는 수출량을 증가시키므로써 가격에서의 손실을 補填할만한 추가시설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이 石油收入을 최대로 올리고 국가경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OPEC와의 협력을 통한 수출량의 감축이다.

이러한 논리는 西方工業國과의 교역에 의한 총 外貨收入의 80%를 석유 및 가스판매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련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산유국들의 不協和의 결과로 油價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 소련은 손실을 補填하기 위해 生産량을 늘릴 형편이 아니다. 그러므로 油價의 어떠한 하락도 소련에게는 심각한 손실이 된다. 英國과 노르웨이 등과 같은 工業國에게도 결국에는 똑같이 적용될 것이 더욱 명백하다.

“油價가 계속 떨어지면 非OPEC가 더 타격”

石油産業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새로운 原油의 生産을 위한 시설비, 개발비, 운영비 등의 資本費用이다. 현재의 油價수준에서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固定費用의 상당부분을 2~4년 안에 회수가 가능하다. 가격경쟁으로 인해 고정비용의 회수가 어려워질지라도 埋沒資本(sunk capital)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각 產油國들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위해 가격경쟁을 불사하는 상황에서 油價가 運費費를 커버할 수 있는 한 生産,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럴 경우 油價下落的 유일한 最底點은 生産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의 限界運費費이다. 참고로 1920년대 美國에서 석유회사들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쟁탈전을 벌였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결과 油價가 배럴당 10~20센트 하락하였는데, 이유는 그들의 運費費가 資本費用에 비해 매우 낮았던 데 기인한다. 공급과잉상태에서 生産과 시장점유율의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은 매우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러한 상황에 20년대末 석유회사들은 시장세어의 조정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30년대

와 40년대 美鐵道委員會(Railroad Commission)에 의한 석유생산 割當制가 시행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간단히 말해서 市場均衡의 한계치로서 배럴당 20달러의 油價는 석유산업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OPEC과 非OPEC 산유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生産량을 조정하고 價格을 일정 수준에 유지시키든지, 아니면 生産량을 가격경쟁의 市場狀況에 맡길 것인지 두 갈래의 길이 있다. 그러나 가격경쟁의 시장상황 하에서 배럴당 20달러가 반드시 最底價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있다. 예컨대 가격경쟁에 따른 세계의 貿易 및 金融關係, 對外負債, 經濟成長率, 그리고 메이저들의 利潤 및 投資計劃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또한 경제력 및 정치력의 판도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問 주요 非OPEC開途國들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는가?

答 OPEC의 새 전략에 관한한 開途國이나 工業國 또는 共產圈이건간에 특별한 고려는 없다.

OPEC와 가격경쟁을 하는 국가는 모두 손해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問 이 기간동안 OPEC의 회원국 수에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가?

答 이것은 OPEC와 非OPEC와의 관계와 OPEC 회원국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달려 있다.

만일 非OPEC 산유국들이 현재의 판매량 극대화 정책을 고수한다면, 가격책정의 自律權을 保持하고자 OPEC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동시에 시장점유율 확대

를 위하여 OPEC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거시적으로 내다본다면 OPEC와의 협력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이며, 따라서 회원가입에의 강한誘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OPEC의 새 전략에 대한 그들의 대응에 달려 있다.

그러나 회원국수를 늘리는 것이 원래의 목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OPEC와의 협력범위를 비록 機構 밖에 있을지라도 모든 산유국들에게로 넓히는 데에 있다. 즉 非회원국 중에서 OPEC의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을 넓히려는 것이다.

실제로 英國과 노르웨이 등과 같은 산유국들은 石油收入이 主財政收入源이 되어야 하는 OPEC 회원국의 자격요건을 缺하고 있다. 멕시코, 이집트, 오만 등과 같이 단일 주종상품(석유)의 의존도가 높은 開途國만이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들 產油開途國들은 아직까지 회원가입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없는데, 아마도 가입함으로써 받는 최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듯 하다. 여기서 70년대 중반 몇몇 產油開途國들이, 비록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가입의사를 밝힌 사실을 想起해야 한다.

OPEC會議에 업저버로 참석하고 있는 멕시코를 例로 들어보자. 멕시코는 현재 價格 및 生産에 관한 자유로운 정책결정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OPEC에 가입하여 실제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말해 왔다. 멕시코가 석유시장안정을 위하여 OPEC와 어느 정도 협력할 것인지와 마찬가지로 회원국이 되고 안되고가 OPEC에게는 실질문제가 안된다.

이제 OPEC 회원국수의 감소가

능성에 대해서는 먼저 회원국들의 석유매장량의 분포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 매장량이 극히 한정된 국가가 있는가 하면 막대한 매장량을 보유한 페르시아灣 국가들도 並存하고 있다. 매장량이 적은 국가들은 필요한 財政을 위해서 최대한의 생산을 하려 할 것이나 동시에 국내석유소비도 증가하여 수출가능량은 그만큼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석유수출능력을 평가하기에 5년이란 기간은 충분치 못하다. OPEC 회원국수가 감소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개인적인 기대이다.

問 OPEC의 생산량 조절이 보다 용이해지리라고 보는가?

答 먼저 OPEC 회원국들의 최소한의 財政을 위해 요구되는 원유생산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규명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만일 OPEC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겨울 이전처럼 15백만b/d로 떨어진다면, 이처럼 낮은 생산수준에서는 OPEC 국가들이 상당한 재정적인 곤경에 직면하게 되어 생산량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 반면에 최소한의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면, 과거 사실이 입증하듯이, 생산량 조절이 보다 용이해진다.

82년 OPEC의 생산량이 19백만b/d로 3년전에 비해 12백만b/d 감소하였을 때만 해도 당시 가격수준으로 그러저럭 財政需要를 충족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다시 分歧點인 16백만b/d 이하로 떨어지자 OPEC로서는 정책전환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非OPEC 산유국의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OPEC가 매우 낮은 생산수준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OPEC는 시장점유율을 잠식당하고 非OPEC만이 득을 볼 것이 아닌가.

問 85년에는 왜 油價가 붕괴되지 않았는지?

答 OPEC가 85년 2/4 분기에는 14.4백만b/d, 3/4분기에는 14.1백만b/d로 각각 생산량을 감축하여 油價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밖에 市場의 약세가 내내 계속된 상황에서 소련의 부분적인 수출중단 그리고 北海에서의 일시적인 생산량 감소 등이 一助했다.

問 中東과 비교하여 새로운 석유생산지역(北海, 北極圈, 멕시코 등)에 대한 長期展望은?

答 멕시코는 막대한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非OPEC 산유국이다. 반면 北海와 北極圈은 供給이 비교적 한정되어 있으며, 높은 생산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投資가 소요되는 새로운 油田의 발견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지역에서의 석유개발은 深海와 험한 自然環境과 싸워야 하므로 최대의 비용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英國의 北海油田에서의 생산비는 資本費用을 고려할 때 1bn 당 25달러가 소요된다. 장래에 멕시코는 주요 생산지역으로 남아 있을지라도 北海와 北極圈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問 현재와 비교하여 1년 후의 세계 석유생산 수준에 대한 전망은?

答

1년후의 세계석유생산은 세계의 消費量에 크게 좌우될 것이며, 훨씬 정도는 덜하지만 備蓄量 推移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80년을 頂點으로 하여 이후 공산권을 제외한 세계의 石油消費量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1년 후에도 지금과 별다른 상황이 없을 것이다. 한편 石油備蓄이 생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79~83년 기간동안의 그것에 비해 훨씬 의미가 덜하다. 소비국들은 석유비축의 강박관념에 의하여 지금 IEA(國際에너지機構)의 지정수준 가까이 유지하고 있어 석유공급 없이 90일간을 지낼 수가 있다.

더구나 현재의 석유상황으로 보아 소비국들이 다시 비축량을 提高시키려는 動因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석유비축은 소비국들이 석유의 안정확보의 불안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에서만 필요성을 느끼는 많은 투자를 요하는 사업이다.

또한 석유비축량이 현저히 줄어드리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상 언급한 2가지 이유로 해서 1년후 공산권을 제외한 세계 석유생산수준은 크게 변화지 않으리라고 본다.

問

다른 에너지源, 특히 가스와의 경쟁에서 石油가 補完燃

料(Swing fuel)로 머무를 것인지?

答

73년 이전에는 세계 에너지 소비의 증가분이 곧 石油增加分이었으며, 나아가 기존 에너지源, 특히 石炭의 代替燃料로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메이저들이 中東全域에 걸쳐 租鐵權을 갖고 원유의 생산·판매를 장악하여 생산비가 낮았기 때문이었다. 가스도 어느 정도 소개되었으나, 石油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補完燃料은 석유가 아닌 다른 에너지源이었다.

그로부터 10년후 세계 에너지 산업구조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石炭, 原子力, 그리고 훨씬 못미치지만 가스 등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였다. 소비국들이 에너지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위의 3연료 대신 石油를 수입하여 사용 함으로써 석유는 補完燃料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에너지소비의 구조적 변화의 주요 원인은 특히 發電 연료에 있어서 石油의 가격경쟁력이 石炭, 原子力, 가스 등에 비해 비교적 열세로 전환된데 기인한다. 따라서 현재의 原價費用上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한다면 세계 에너지균형과 補

完燃料로서의 석유의 위치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외에 2개의 주요한 관련 요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環境保護에 따른 石炭소비의 변화이다. 소비국들의 環境規制가 완화되거나 또는 技術進歩에 의해 환경문제가 해결된다면, 石炭소비는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原子力産業도 환경문제와 아울러 신규건설시의 막대한 투자비용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政治的인 시장간섭을 들 수 있다. 상대가격과 환경문제가 石油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진전된다 할지라도 에너지安保를 위한 국내자원보호, 또는 OPEC에 대한 석유의존도를 줄이려는 IEA의 정책에 따른 소비국들의 정책적 개입으로 인해 그 效果가 中和될 수도 있다.

이들 3개의 未知의 변수로 인해 세계 에너지산업에서 석유의 장래 역할을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과거 10여년 동안 경험했던 일들이 앞으로도 그대로 계속되리라 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石油가 언제나 補完燃料로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

《Petroleum Review 86. 2》

